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

Marriage and Family Discourse of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성미애(Miai S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chieve an understanding of how ever-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deconstructed and restructured on marriage and family. For this aim, this study adopted a qualitative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3 single women in their 40s and 50s who had never been marrie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ere carried out, focusing on ever-single women's views about marriage and family. The result of them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articipants considered marriage as an unfavorable lifestyle for women. The participants could be split into two types based on their perspectives on marriage. The first type had a universal concept of marriage. In other words, they believed that when they grow up, they should be married women. The other type had a negative concept of marriage because of their parents' unhappy marriage. Despite their view of marriage, all of the participants recognized marriage as a patriarchal structure. Also, they had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to their original families. They had a broad definition of family, so they considered their parents, siblings, and siblings' family members as their family. In addition, they interacted with their families, especially their mothers, who did not have control over their lives but supported them and showed interest in their lives. Like this, the participants maintained their views of married life and family without changing after their single status and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ir family members.

▲주제어(Key Words) : 40, 50대 비혼 여성(40s and 50s ever-single women), 결혼(marriage), 가족(family), 가족 범위(family boundary)

I. 서론

본 연구는 생활사적 맥락에서 비혼의 삶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40대,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과 가족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삶의 주제이다. 개인적 맥락에서 보면, 결혼과 가족은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소속감

을 확보해주는 주요 기제가 된다.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결혼과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형성하게 하는 주요 기제 중 하나이며,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주요 주체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는 결혼과 가족의 보편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선택에 방점을 두고서 다양한 삶의 선택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삶에 대한 연구에 관심의 축이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두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Miai S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aehak-ro 86, Jongno-gu, Seoul 110-791, Korea, Tel: +82-2-3668-4648, E-mail: eliza_s@knou.ac.kr

다양한 삶의 양식에 대한 연구들이 가족학 및 여성학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들로 한부모가족 연구, 다문화가족 연구, 1인 단독가구 연구, 무자녀 가족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비혼 연구도 이러한 다양한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즉 비혼의 삶은 다양한 생활양식 중 한 형태이며, 가족이 우선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보다는 개인의 욕구나 개성을 우선시하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비혼자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경제력을 갖춘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고학력, 고소득의 전문직 비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 Kim, 2007).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의 비혼 현상에 두고서 비혼자, 특히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비혼 여성의 비혼 선택의 원인을 고용 불안이나 생활세계의 변화 등에 두면서, 궁극적으로 비혼 여성의 삶은 새로운 생활양식의 출현이기 보다는 생존과 경쟁이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보다는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임을 밝혀내고 있다(H. Kim, 2007; K. Park, 2011). 이처럼 비혼자 연구는 결혼은 선택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개척하는 집단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입장에서 진행되는 연구와, 저출산의 원인 제공자로 간주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연구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 번째 입장에서 진행되는 선행연구의 맥을 이으면서도 연구의 지평을 넓혀 중년기에 해당되는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이 생애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40대, 50대 비혼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배경은, 이들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 비혼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20, 30대 비혼 여성들과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비혼의 삶을 영위하였다. 즉 이들은 보편적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나 획일적인 사회적 규범이 일방적으로 적용되었던 시기 때부터 자의든 상황에 의해서든 비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다양한 삶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없는 상황에서 편견과 맞서며 비혼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이들의 삶의 경험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인간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년기로, 비혼의 삶을 보다 진지하게 조망해보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혼의 삶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 결혼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비혼의 삶이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적 편견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K. Kim & T. Kim, 2005)에 근거해서 비혼 여성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생애사적 맥락에서 결혼과 가족 담론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 제도가 결혼이나 출산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제도적으로 가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기능을 가족에게 전가한다(K. Chang, 1998). 이처럼 어떠한 안정망도 없는 비혼의 삶을 영위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지, 만약 바뀐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재해석되는지를 비혼 여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특히 비혼자는 가족이 삶의 중심이 되는 가족주의 전통(S. Ok, 1989) 속에서 개인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로 결혼과 가족의 담론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 가족의 변화 방향을 진단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삶의 세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후기 산업사회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40대,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 방향을 예측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II. 선행연구고찰

우리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삶이 연구의 주제로 등장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이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가족학 연구는 주로 결혼과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연구의 주제로 삼지 않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삶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비혼자의 삶은 연구 영역에서 거의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다양한 삶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지며, 결혼은 성인의 당연한 통과의례로 생각했던 보편적 결혼관에 변화가 생기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삶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비혼 여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생활실태에서부터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미혼 독신자의 생활실태를 살펴본 연구들(C. Park, 2002; Y. Shim, 2002; G. Ok, 1999; S. Yoon, 2002; M. Cho, 2002 등), 고용 현실과 저출산의 맥락에서 비혼 여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들

(K. Park, 2011; S. Lee, 2006 등), 비혼 동기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K. Kim & T. Kim, 2005; S. Kim, 2007; K. Shim, 2003 등), 비혼 여성의 생애사를 살펴본 연구들(E. Kang, 2010; E. Yang, 2005 등),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가치관을 살펴본 연구들(E. Kang, M. Chin, & S. Ok, 2010; M. Noh & L. Lee, 2011 등), 비혼자(독신자)의 복지를 살펴본 연구(S. O. Kim, 2005), 그리고 비혼자의 입장이 아니라 기혼자나 청소년 및 대학생의 입장에서 비혼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살펴본 연구(O. Jun & Y. Lee, 2001; K. Ryu & S. Wang, 2010 등) 등이 있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이 주로 20대, 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비혼 여성 중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비혼 여성의 삶에 주목하기 시작한 계기가 소비 주체로서의 비혼 여성이었으며,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향유하는 집단으로서 비혼 여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S. Kim, 2007), 20대, 30대의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 비혼 여성에 주목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당연하다. 또한 연구 참가자가 자신의 생활세계에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질적 연구 방법의 독자적인 장점인 만큼,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20대, 30대 전문직 비혼 여성의 경우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결혼제도를 성차별적 구조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 삶에 대한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결혼을 통한 친밀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억압하고 지연시키는 특성이 나타났다. 즉 결혼을 선택이라 여기며, 싱글 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관련해서 비혼 여성들의 경우 원가족으로부터 분화하여 새로운 의미의 가족을 만든다고 결론을 지은 연구 결과와, 개인주의적 삶의 경향보다는 여전히 원가족, 특히 부모와 깊은 유대를 가지면서 생활한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해 있다. 한편, 기혼자나 청소년 및 대학생들은 비혼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결혼의 힘든 현실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일과 자기 계발에 몰두하며,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구의 비혼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시작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드물게 포착되고 있다(E. Kang, 2010). 이들 연구들은 기혼자와 비혼자를 비교하는 연구들(R. H. Coombs, 1991; N. D. Glenn & C. N. Weaver, 1988; T. A. LaPierre, 2009; N. F. Marks, 1996; N. Sarkisian & N. Gerstel, 2008), 비혼 동기나 비혼 여성의 삶에 대한 연구

들(T. Gordon, 1994; J. Simenauer & D. Carroll, 1982), 중년 독신자의 데이트 파트너 선호에 대한 연구(J. Fitzpatrick, E. A. Sharp, & A. Reifman, 2009), 비혼자가 경험하는 편견에 대한 연구(L. Cargan & M. Melko, 1982) 등이 있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혼자와 비교했을 때 기혼자가 일반적으로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덜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혼 자녀의 경우 자신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비혼 자녀나 이혼 자녀가 기혼 자녀보다 세대 간 유대가 더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부모와 동거하거나 상호작용하는 비율도 기혼 자녀보다 비혼 자녀나 이혼 자녀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부모와 정서적, 경제적, 실제적 도움을 주고 받는 수준도 기혼 자녀에 비해 독신 자녀나 이혼 자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혼의 삶이 과도한 헌신과 책임을 요구하는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며, 본인만의 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선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중년 비혼자의 경우 자신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데이트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혼자에 대해서는 바람둥이 아니면 외로운 패배자라는 인식이 하나의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신 여성은 여전히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삶을 살면서 기혼자의 부부관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점차 비혼자, 특히 비혼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변화되기 시작하여, 여전히 “노처녀(old maid)”라는 이미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독신 여성의 이미지, 즉 “도시 여성”으로, 활동적이며, 권력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는 이미지도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맥을 이으면서도 비혼 여성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의미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현재의 삶을 성찰하면서 노년기를 생각하게 되는 중년기의 40대와 50대로 확대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40, 50대에 해당되는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생각을 본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Kang(2010)의 비혼 여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근거로 하여 현재 법적,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며, 과거 혼인 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 현재 연령이 40대와 50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주위 사람들을 통해 40, 50

대 비혼 여성을 찾아본 뒤, 연구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진실된 자료를 얻고자 노력하였으며, 면접 내용 중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해 사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은 주로 비혼의 삶을 영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과 얼마만큼 상호작용을 하며, 누구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비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뀐 측면이 있는지 등이었다. 또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연구 참여자에게 미리 제공하였으며,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자료의 익명 처리를 고지하였고,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연구 참여자와 약속하였다. 또한 연구가 종결된 후에는 문서화된 녹취록을 전량 안전하게 소각할 것이며, 녹음 파일 역시 삭제할 것임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렸다.

2.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연구 참여자는 40대가 9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7.7세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2명,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가 1명, 대학 졸업인 경우가 2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대학원 졸업이었다. 직업은 다양하여, 자영업 1명, 조리사 1명, 발권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 2명, 강사 3명, 교수 1명, 무직 1명, 미술치료사 1명, 학회 간사 1명, 미술 강사 1명, 연구원 1명이었다. 거주는 혼자 단독가구를 이루는 경우가 가장 많아 7명이었으며, 그 다음 사별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 3명, 결혼한 형제자매가 없어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1명, 형제자매들은 결혼하고 본인만 부모님과 사는 경우 1명, 사별한 어머니와 결혼한 언니의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1명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소유 형태를 보면, 사별한 어머니나 부모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5명, 본인 소유 아파트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4명,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2명, 월세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2명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ame	Age	Education	Job	Monthly Income (unit: millian won)	Cohabitee	Residence ownership
# 1	49	over college graduate	self-employed job	400	mother	apartment belong to her mother
# 2	43	college student	cook	200	mother	building belong to her mother
# 3	55	high school graduate	note issuing operator	100	none	house received from her father
# 4	40	over college graduate	instructor	100	parents, younger brother	parents' house
# 5	46	over college graduate	instructor	200	none	apartment belong to her
# 6	45	high school graduate	note issuing operator	100	none	permanent rental apartment
# 7	45	over college graduate	professor	450	none	monthly rental apartment
# 8	47	over college graduate	instructor	250	mother	apartment belong to her mother
# 9	43	college graduate	inoccupation	nothing(support from mother)	mother, elder sister's family	apartment belong to her mother
# 10	50	over college graduate	art therapist	100	none	leese apartment
# 11	57	over college graduate	assistant administrator	60	none	permanent rental apartment
# 12	49	over college graduate	art instructor	300	none	apartment belong to her
# 13	51	college graduate	researcher	600	parents	apartment belong to her

면접은 2013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1회의 면접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삶,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다. 면접 소요시간은 사례별로 평균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양해를 얻어 소형 녹음기에 녹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동이나 표정, 강조점, 특이한 사항 등을 현장 노트에 메모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사하였고, 녹취록과 현장 노트의 메모 내용을 토대로 해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3. 연구의 분석틀

심층면접 자료는 중심주제 분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심주제 분석법은 특정 이론의 틀을 따라가기 보다는 질적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를 도출하는 방법으로서(Braun & Clarke, 2006), Braun and Clarke(2006)가 주장하는 6단계 주제 분석법에 맞추어 비혼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결혼과 가족의 의미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를 서술하는 작업을 하였다. (1) 먼저, 연구자가 심층면접 자료와 친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심층면접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각 사례의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2) 다음, 심층면접 자료를 토대로 결혼과 가족과 관련된 초기 코딩 작업을 하였다. 초기 코딩 작업에서 도출된 내용은 의미 단위의 내용들로, 한 단어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었다. (3) 그리고 초기 코딩 작업에서 도출된 내용 중 유사한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통합하고 검증하면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주제로 도출된 내용은 보편적 결혼관, 부정적 결혼관, 가부장적 결혼생활 구조, 궁상맞은 결혼생활,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 결혼생활의 물적 토대를 갖춘 사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가족의 의미, 현재 지각하는 가족의 범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 등이었다. (4) 다음, 이렇게 도출된 주제가 다른 주제와 체계적으로 잘 연결되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5)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검증한 뒤 연결되는 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의 의미는 크게 다섯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으며, 각 범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좋은 배우자에 대한 인식, 가족에 대한 인식,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으로 명명화 하였다. (6)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를 통합해서 기술하는 서술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해석한 결과를 가족학 박사학위를 소지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으로 학위 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발표한 동료 1인에게 보여주고 비평을 받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g)(Lincoln & Guba, 1985, 243)을 실시하였다. 동료 검증 과정을 거쳐 연구자가 과잉 해석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검증 과정 속에서 의미 단위와 주제, 그리고 범주를 확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결혼에 대한 인식

1) 때가 되면 가는 보편적 결혼관 vs. 부정적 결혼관
연구 참여자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보편적 결혼관과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부정적 결혼관으로 나누어졌다. “나이 들면 저절로 가게 되는 것”, “어른이 되면 저절로 가는 것”, “때가 되면 가겠지” 라는 진술에서처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가 들거나 어른이 되거나 때가 되면 하는 통과의례로 인식하는 보편적 결혼관을 보였다. 보편적 결혼관을 보이는 대표적인 연구 참여자는 #1, #3, #4, #5, #7, #9, #11, #13이었다.

“때가 되면 가겠지.. 하고... (중략) 부정적인 생각은 없었어요. 네...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사랑하면 하고 나는 또 직장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고 맞벌이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한거죠.” (#1)
“그냥 나이 들면 저절로 가게 돼있는 줄 알았어요.” (#11)

한편, 부정적 결혼관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는 #2, #6, #8, #10, #12이었다. 이 중 #12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의 불행한 결혼생활이나 갈등 상황이 전제되어 있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근데 아버지는 당신이 아프시니까 그 스트레스가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 저와 엄마한테 푸셨어요. 그런 것을 보니까 결혼을 안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5)

반면, 연구 참여자 #12는 부모님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의 희생 속에서 부모-자녀 간 연대가 이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에 반감을 가지면서 청소년기 때부터 독신주의를 고수하였다고 밝혔다.

“혼자 생각했던 게...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 생각했던 것이 그냥 쪽 (혼자 산다는) 그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중략) 한가지 생각을 했더라면... 주변에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희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자기 딸한테 희생을 하는 모습이나... 자식들한테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 그 자식이 볼 때는 부모가 주는 사랑이지만 그게 타자가 보기에는 그게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적으로 살지는 말자는 생각이 그 때 좀 많이 있었어요.” (#12)

2)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보편적 결혼관이나 부정적 결혼관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연구 참여자가 보이는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가부장적 결혼생활 구조, 궁상맞은 결혼생활,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가부장적 결혼생활 구조로 인식할 때는 “남의 집” 들어가서 희생하면서 살기, “억압”, “굴레” 등으로 결혼을 인식하며, 성차별적 역할 분담 구조에서 여성이 해야 하는 것은 출산, 살림 등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삶은 궁극적으로 남성에게 의지하는 삶으로 보았다. 그래서 결혼생활은 “시댁이랑 얽히는 삶”으로, 성차별적 가사노동 분담이 작동하는 공간에서 자기 삶이 없어지는 삶의 패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혼에 대한 부담감도 전 사실은 좀 있어요. 왜그러냐면 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드라마 봐도 그렇고 친구들 얘기하는 것 들어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물론 아닌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뭐 집안일 관련해서 무언가를 안했다. 어, 이게 안돼있네 이렇게 보는 성격이면 상관없는데 제가 어, 내 일인데 안 했네 이런 부담감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부담감을 제가 느낄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남녀차별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은연중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생각이” (#4)

또한 결혼생활은 “생판 모르는 사람”과 “지지고 볶고 사는 것”, “밥하고 빨래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피곤”한 삶, “구차”한 삶 등 궁상맞은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언니도 그렇고. 막 신데렐라처럼 부유하게 살거나 막 이렇게 어떤 행복해 보이거나 이랬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더라고

요. 주변사람들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고, 친구들 사는 걸 보면은 그냥 걸보기로 지지고 볶고 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 들어가서 내 부모도 아닌데 남의 부모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 하기도 싫고 왜 그 집 가서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런지 그것도 싫었고 그냥 싫더라고요. (#11)

한편, 결혼생활은 가부장적 구조, 궁상스러운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책임이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를 효도로 인식하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비혼 상태를 불효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런 생각은 부모가 병 중이거나 돌아가실 때 비혼인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 #5는 비혼을 수용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다른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부모를 위해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였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아버지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게 불효구나. 이제 그 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뭐 결혼에 대한, 해야겠다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그 때 처음으로 결혼은 해야 되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이란걸 해야 되겠구나. 그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중략) 나머지 가족들은 다 포기했어요. 혼자 살아라 이러는데 부모님은 아직 이제 붙잡고 계시구요. 이제 제일 안쓰러운 거죠 제가. 제가 제일 안쓰럽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늘 불효하는 것 같은데...” (#5)

“언니도 사는 게 그렇게 딱히 막 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서 막 못사는 것도 아닌데 별로 부럽지는 않더라고요.. 올해같은 경우는 아빠 돌아가시는거 보니까 언니들 옆에는 형부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도 없으니까 쳐다보는 것도 그렇고 왠지 그렇더라고요.. 내가 되게 잘 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부모님한테 잘 못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을 안 한게 죄는 아닌데 죄스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실 때 까지 나를 걱정했다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뭔가 내가 결혼을 안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결혼을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옆에 사람이 있다면. 좀 나왔겠다... 이런 생각은 드셨겠죠. (중략) 물론 언니들도 결혼 안해서 그랬으면 같이 그랬을텐데... 그게 아니니까요.

어찌보면 제가 하지 못한 효도를... 언니들이 결혼을 함으로써...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2)

3) 좋은 배우자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하는 것을 시집을 가는 것과 동일시 하면서 결혼을 남의 집에 혼입된다는 전통적 혼인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을 상쇄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충분히 보상이 될 수 있는 좋은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좋은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은 가부장적이며, 억압적인 성차별적 구조, 그리고 공상맞은 삶이 될 수 있는 현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이 있고, “자기 집”도 있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세속적”기준에서도 괜찮으며, 주변 환경이 원만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직업도 있고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좋은 사람이라기 보다는 그렇잖아요, 상황이...” (#1)

“자기 집은 있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2)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전통적 결혼관 외에 서정적 결혼관도 보여 안정된 결혼생활의 물적 토대 외에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아함”, “사랑함”, “편안함” 그리고 “이상이 맞는” 사람을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야말로 정말 내가 이 모든 것, 성가신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된다.” (#11)

2. 비혼자와 가족

1) 가족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는 “혈연”, “혈육”으로 인식하였으며, 이 혈연과 혈육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배를 타고 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보았다. 이처럼 가족을 혈연으로 맺어진 운명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가족의 중심부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삶보다 비교적 자유롭다고 인식되는 비혼자의 삶임에도 가장 소중한 관계는 “가족”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은 “백이 없는 관계”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도 없으며, 외로움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가장 소중한 존재요... 한 배를 타고 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11)

“(가족은) 서로 간의 책임감 때문에 (사는 관계)...” (#1)

“아직은 외롭고 어찌고...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중략)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혼자살았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도 있고 건너편에 언니도 살고... 아주 가까이에...” (#1)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사망 후 기혼 형제자매들에 의해 본인이 어머니의 보호자로 인식되는 상황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밝힌 연구 참여자 #2와, 어머니의 감정적인 반응이나 간섭을 극도로 싫어하는 연구 참여자 #10을 제외하고는 부모와 동거하거나 그렇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에도 원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비혼이라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의 양식으로 인해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돌보는 일이나(#3, #9), 조카를 돌보는 일(#4, #8, #9, #11)에 거의 전적으로, 또는 보조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아빠가 너무 많이 아프시고 너무 이 생활에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 일이 다 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라는 연구 참여자 #9의 진술처럼, 원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해서 “남의 집 가서 해주고 하느니 우리 집에서 희생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11)라는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결혼하지 않은 자신이 부모를 모시거나 가족을 도와주는 상황을 당연한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 돌봄은 “희생”이 아니라 자신의 “도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동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고 밝혔다.

“5년은 아빠 병간호... 언니 애들 봐주고... (중략) 언니는 직장을 다니고 남동생은 결혼을 했고 결론적으로 제 차지가 되고. 저는 사실 그런거 별로... 당연히 가족이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중략) 결혼한 그런 애들도 보면 (시부모한테 하는데) 그럴 바에야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게 낫지,” (#9)

“희생하는 것도 전혀...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은 해야겠지만 보상심리는 없어요.” (#11)

“제가 하는 게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저 혼자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편안할 것 같아요...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 안해요.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5)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중 딸의 결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는 어머니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자녀의 결혼과

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한국 사회(여성가족부, 2010)에서 예외적으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의 어머니들은, 딸을 키울 때도 아들과 차별하지 않았으며, 딸의 성취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어머니의 절제된 관심과 지지는 비혼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즉 어머니의 지나친 통제 때문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원치 않는 연구 참여자 #10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 참여자들은 딸의 결혼을 원하나 딸의 선택을 인정해주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났을 때는 비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인정해 주는 어머니와 가족 내에서 가장 친밀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엄마랑 부딪힌 적도 없었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엄마랑 거의 일치할 다 봤었기 때문에 힘든 게 없었구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봐도 저희 엄마처럼 저런 부모 노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살면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굉장히 엄마 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4)

“저희 엄마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그게 한 가정을 그대로 이루고 살 수 있을지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엄마가 원래엄마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 엄마는 아들, 이런 것도 없고 의외로 대범하신 편이죠...” (#9)

그러나 이러한 친밀하고 지지적인 모녀 관계에는 혼자 살고 있는 딸이 편안하고 의지가 되면서도 안쓰럽게 생각되는 어머니의 마음도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제가 혼자 살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요. 언니나, 저희 언니는 자기가 같이 살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말 잘 안하는데 (중략) 엄마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엄마가 자꾸 나이가 드시고 조금 어른들이 나이가 드시면 자기가 좀 의지하려는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그런게 없으신데 예전에는 그러다가 보니까 엄마도 이제 언니도 결혼했고 며느리도 안 편하고 사위도 안 편하고 내가 제일 편하다고 느끼시니까 자기는 나랑 같이 살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내가 속으로 ‘엄마 왜 나한테 그래’라고. 우스개 소리로 나는 ‘나랑 살 생각 하지 말고 아들이랑 살 생각해’ 땀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이 그렇지 혼자면 외롭겠죠. 부모님 계신 게 낫고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큰 힘이니까. 그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한테, 부모님 옆에서 제가 많이 케어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도 엄마 생각에는 제가 혼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저랑 같이 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저는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웃음) 왜 나이 드시면 아들을 생각하셔야지.” (#9)

2)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하였다면 “내가 속한 그 가정”(#7), 즉 자신의 생식가족을 1차적인 가족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혼인 현 상황에서는 비혼임에도 원가족과 끈끈한 관련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본인이 투병 중인 아버지를 전담해서 간호를 했고, 그에 따라 살고 있는 집을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아 현재 혼자살고 있으며, 아버지 사망 후에는 혼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가족 뿐만 아니라 기혼형제자매의 생식가족까지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가족의 범위를 아주 폭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범위까지 가족의 책임을 다 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동생네 가족하고... 부모님...” (#7)

“부모는 부모니까 이제 만약에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좀 해주어야 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형제 간에 관계가 있으면 형제 간에 좀 뒤 뒷받침 해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 혼자만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간에는...” (#1)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폭넓은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자신들의 생식가족만 가족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부모 사망 후 자신이 가장이 되어 “동생들을 다 출가시켰고”, “가족 단위로 항상 같이 있어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으며, “형제가 만나면 제일 좋아요.”라고 진술한 연구 참여자 #11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신들은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제 동생도 저한테는 친 가족이지만 그쪽에서 볼 때는 아닌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엄마가 떠나고 나면 나 혼자 남게 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있죠.” (#8)

“사실 저도 이제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불안감 같은게... 왜냐하면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이었는데 부모가 안 돌아가실 것 같이 평생 같이 있을 것 같았는데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그 충격이 크더라고요 사실은.

혼자라는 그거에 적응되는 데 한 1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중략) 사실 저하고 연결된 혈연은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 나하고 혈연관계가 아무도 없으면은... 형제 자매는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약간 좀 쓸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3)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생활사적 맥락에서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과 가족 담론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법적, 사실적 혼인관계에 있지 않으며, 과거 혼인 경험이 없는 여성 중 면접 당시 연령이 40대와 50대에 해당되는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40, 50대 비혼 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40, 50대 비혼 여성들은 개인 및 가족 특성에 상관없이 때가 되면 결혼을 할 것이라는 보편적 결혼관과 부모님의 불안한 결혼생활이나 자녀에게 과도하게 헌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정적 결혼관을 보인다. 그리고 결혼생활 자체를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해야 하며, 성차별적 역할 분담이 작용하는 가부장적 구조로 인식하고, 결혼생활의 실태는 궁상스러운 삶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전통적 결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결혼은 병약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이고 효도의 실천이라고 인식한다. 이런 연유로 자신의 비혼 상태를 수용하면서 안정감을 찾는 다른 연구 참여자와는 달리 한 사례는 부모를 위해 지금 현재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고자 방향 선회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비혼 여성은 결혼=시집을 가는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결혼을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혼입되는 전통적 혼인 구조로 인식한다. 이러한 결과는 독신 여성의 경우 결혼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his marriage and her marriage”라는 결혼제도를 이중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결과(C. Park, 2002)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0, 50대 비혼 여성은 이러한 불안감을 상쇄하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충분히 보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본다. 즉 결혼생활의 안정된 물질 토대를 제공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서정적인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을 좋은 배우자로 인식한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사유를 살펴본 연구(E. Kang, 1981)에서 나타난 미혼 여성의 결혼 사유인 사랑과 경제적 안정이, 비혼의 삶을 지속하면서도 그대로 좋은 배우자의 이

미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0, 50대 비혼 여성의 결혼 담론은 사랑과 경제적 안정이라는 1980년대 결혼 담론(E. Kang, 1981; J. Song, 1988)이 비혼 경험 속에서도 해체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중심에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보편적 결혼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 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살펴본 연구(S. Y. Lee & S. Hwang, 2003)에서 나타난 전문직 독신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이라 여기며 싱글 생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40, 50대 비혼 여성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례에서 전통적, 보편적 결혼관을 거부하면서 자발적인 비혼의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변화의 여지는 어느 정도 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혼의 삶이 젊은 층에서 자발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 사회에서 결혼의 의미는 변화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다음, 40, 50대 비혼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면, 40, 50대 비혼 여성은 가족을 혈연으로 이루어진 운명공동체로 인식하며, 이러한 가족의 중심부에는 가족원 간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다. 가족을 가장 소중한 관계로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 속에 자신의 생식가족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기혼 형제 자매와 달리, 비혼 여성들은 원가족의 유희 노동력으로 인식되거나 본인도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원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더 깊이 개입된다. 그리고 가족 중 딸의 결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결혼을 강요하지는 않으며,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어머니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비혼 여성의 경우 다른 어느 가족관계보다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사일이나 행사에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고, 개인적인 일 또는 집안일을 상의하는 일상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독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심리적으로는 독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S. O. Kim(2005)의 지적이 본 연구에서도 지지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0, 50대 비혼 여성의 경우 원가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전형적인 가족 쇠퇴와 인간관계의 몰상화 혹은 개인화의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는 일부 주장(S. Park 2006)은 비혼 여성이 모두 1인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비혼자의 가족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 주장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 비혼자는 자신들과 달리 가족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가족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지낼 것이라는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비혼자에 대한 이미지(T. Gordon, 1994; K. Ryu & S. Wang, 2010)는 고정관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0,

50대 비혼 여성의 삶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인 20, 30대 전문직 독신여성의 삶(S. Y. Lee & S. Hwang, 2003)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과 비슷한 연령대에 있는 기혼 중년 여성이 인식하는 가족범위는 생식가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M. Sung, 2012), 비혼 여성들은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생식가족을 모두 포함하는 식으로 광범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원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혼 1인 가구의 경우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와의 교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고립된 개인도, 자신의 일이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개인주의자로 획일화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는 연구결과(H. Kim, 2007)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자신들의 폭넓은 가족 범위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자신들의 생식가족만 가족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자신들은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비혼 여성의 가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볼 때, 40, 50대 비혼 여성은 경제적 안정 위에 서정적 부부관계를 추구하나 결혼 자체는 가부장적 제도로 인식하며, 가족을 책임과 의무의 관계로 인식하는 등 결혼과 가족에 대한 생각은 비혼 과정을 통해서 크게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측면은 없이 성인기에서부터 중년기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서 본인의 계획에 따라 영위되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원가족의 삶, 특히 원가족 돌봄 등에 크게 기여하는 등 원가족과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40, 50대 비혼 여성의 경우, 사회적 구조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삶의 선택으로서 비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험, 즉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였거나 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이나 어머니의 이기적인 수준의 자식에 대한 헌신을 보고 자라면서 비혼의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크게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측면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40, 50대 비혼 여성의 경우, 20년 넘게 가족과 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논의의 축이 되었던 U. Beck의 개인화 이론(1986)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가족 인식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혼자 남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는 만큼, 그 시점에서는 가족지향적 개인화의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40, 50대 비혼 여성들의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서는 비혼의 경험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비교

적 고학력자를 연구 참여자로 표집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계층의 비혼 여성의 인식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력, 직업 등에서 비교적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연구 참여자를 표집해서 비혼의 삶에 대한 인식이나 노년기 삶에 대한 인식에 대해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비혼자 연구에서도 소외된 40, 50대 비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담론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통합 관점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식을 살펴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REFERENCES

- Beck, U. (1986).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argan, L., & Melko, M. (1982). *Singles: myths and realities*. Beverly Hills, Calif: Sage.
- Chnag, K. (1998). Risk components of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 as complex risk society. *Korea Journal*, 38(4), 207-228.
- Cho, M. (2002). A Study of housing design guidelines for the single househol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219-227.
- Choomb, R. H. (1991). Marital status and personal well-being: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40, 97-102.
- Fitzpatric, J., Sharp, E. A., & Reifman, A. (2009). Midlife single's willingness to date partners with heterogeneous characteristic. *Family Relations*, 58(1), 121-133.
- Glenn, N. D., & Weaver, C. N. (1988). The Changing relationship of marital status to reported happi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2), 317-324.
- Gordon, T. (1994). Single women and familism: Change from the margins. *The Europe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 165-182.
- Kang, E. (1981). *A Study on the unmarried men and women's view of marriage between Seoul and Jeju resident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ang, E. (2010). *An autobiographical life history study on the voluntary ever-single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Kang, E., Chin, M., & Ok, S. (2010).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women's voluntary ever-singlehood: focusing on marriage and family valu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2), 135-144.
- Kim, H. (2007). The Study on the cause of being single and family value of single person household.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Proceeding*. 1041-1057.
- Kim, K., & Kim, T. (2005). Qualitative study the causes of being single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3(6), 61-79.
- Kim, S. O. (2005). A Study on the welfare strategies for the singles. *Human Ecology*, 8, 21-38.
- Kim, S. (2007). A Study on the single culture of the highly educated never-marri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LaPierre, T. A. (2009). Marital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over time; age and gender variations. *Family Relations*, 58(4), 404-416.
- Lee, S. (2006). A Study on impact of the change in values on marriage and fertility behavio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6(2), 95-140.
- Lee, S. Y., & Hwang, S. (2003). A Study on the lifestyle for single professional female. *Human Ecology*, 6, 267-281.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Marks, N. F. (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4), 917-932.
- Noh, M., & Lee, I. (2011). Family experiences of never-married women.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9(1), 77-101.
- Ok, G. (199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dissatisfaction of never-married Sing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Pusan.
- Park, C.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ttitudes and the perceptions toward a single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63-171.
- Park, K. (2011). The Reality and choice of instable employment of single women in their 20's-30's.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27(1), 1-39.
- Ryu, K., & Wang, S. (2010). The Images of unmarried single women as seen from the viewpoint of married men and women: focusing on stereotypes of unmarried single wom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3), 37-54.
- Sarkisian, N. & Gerstel, N. (2008). Till marriage do us part: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360-376.
- Shim, K. (2003). *Study on korean unmarried 'bihon(非婚)' women : concerning socio-cultural factors which influence unmarried women in their mid-thirty to late fo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him, Y. (2002).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conomic life of single household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197-208.
- Simenauer, J., & Carroll, D. (1982). *Singles: the new americans*. New York: Simon & Schuster.
- Song, J. (1988). *A Study on dating and the view of marriage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Sung, M. (2012). Traditional family rites and family systems in contemporary Korean families from middle-aged Koreans' perspect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6), 103-114.
- Yang, E. (2005). *The Study of life and career development of the highly educated never-married career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Yoon, S. (2002). A Comparison of single people an unmarried group and a married group.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0(6), 209-217.

접수 일 : 2014년 01월 15일

심사 일 : 2014년 02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4월 15일